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0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7일 (윤달 5월 14일) 금요일

## J프로젝트 또 '암초'...사유지 보상 주민 반발



J프로젝트 구성지구 조감도

10여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활기를 띠 것 으로 예상했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가 또 다시 복병을 만났다.

6월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추진 중인 구성지구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과 함께, 토지로의 형질변경을 앞두고 있지만

### 매립공사 토지 감정평가 완료돼 공유수면 토지화 압박 전체 20% 사유지 "보상가 낮다"...강제수용 조항 압박

개발구역내 사유지 보상을 놓고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2095만9540㎡(634만평) 규모에 추진 중인 구성지구는 선도사업으로 2500세대 규모의 솔카운티(레저주택)와 36홀 골프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매립공사 준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돼 공유수면(간척지) 토지화가 임박한 가운데 전체 개발 구역 2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나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예정인 주민들은 땅값 보상가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발구역내 토지가 2010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부터 사실상 땅값이 묶인 반면, 6년이 지난 뒤 주위 땅값은 2~3배가 올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반발이 심하다.

주민들은 기업도시특별법 등에 따라 사업자가 개발계획 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압박을 받고 있다.

전체개발 면적중 2095만9540㎡(634만평) 중 사유지는 22.1%인 140만평, 2432필지, 소유주가 1188명에 이른다. 토지화를 앞둔 간척지는 76%인 482만평 규모다.

최근 해남군이 국토교통부에 집의한 결과 개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간척지가 토지화되면서 50% 토지 강제 수용 조항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비밀 언덕도 사라진 셈이다.

전남도와 해남군, 사업자들은 주민들의 반발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대책마련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0년 개발계획 승인 과 토지감정보상 기간이 6년이라는 갭이 있다보니 개발구역 땅이 주위에 수용되지 않은 땅보다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어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지체에 이전 및 생활대책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이에는이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5일 오전 7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와 미 공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초탄 명중사임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훈련에 동원된 현무-2A는 극저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술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키텐스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1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는 약 300㎞다.

이번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주장 발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될 때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무력 시위를 했다.

관련 인사의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3주내 결정된다'

### 광주지법 재판부, 변호인에 오는 14일까지 자료제출 요구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결정이 3주 안에 결정된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6일 오전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2~3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지 않아도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참고 자료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심리를 종결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3주 안으로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한편 5월 단체 등은 지난달 12일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

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민변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회고록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 전 대



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5·18 최초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5·18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조인호 기자

##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